

화물연대 파업...물류차질 '현실화'

기아 '카캐리어 운행' 중단
 금타 신차용 타이어 출하 비상
 광양제철·여수산단 마비 우려
 생산 제품 90% 공장에 쌓여

우려되던 운송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9일 광주·전남 화물연대와 각 기업·관공서 등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출정식을 마친 광주지역 화물연대 조합원 1,500명은 현재 광주지역본부 10곳과 목포지부 9곳으로 흩어져 운송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이에 지난 7일 완성차를 운송할 카캐리어 화물차 운행이 멈췄고, 기아 오토랜드는 지난 8일 생산 물량을 공장 주차장에 모두 수용하기 어렵

게 되자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다른 출하장으로 옮겼다. 변호관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10일 수출선적용 차량 출하를 위해 이날도 서구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인해 기아차 광주 2공장 차고지는 전날과 비교해 주차 차량이 약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또한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는 OE 물량(신차용 타이어) 출하에 비조합원 인력과 대체 차량을 집중하고 있다. 나머지 물량의 경우 일부 차질이 생

겨 정상적으로 출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원재료 공급에도 일부 차질이 있지만 생산에는 아직 문제가 없다"면서 "광양 등에 타이어 야적장이 있지만 1~2주정도 파업이 더 이어진다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물류 차질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파업 이틀째였던 지난 8일 하루에만 철강 제품 등 1만 5,000t의 물류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반출되지 못했다.

광양제철소는 이날도 전날과 비슷한 1만 5,000기량의 생산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다. 여수산단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 600여명이 지난 7일부터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장 앞에서 거점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석유화학업체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긴급한 물류는 미리 반출하거나 다른 물류 창고로 옮겼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산 제품이 공장에 쌓이고 있다. 긴급한 물량은 화물연대 측과 협의를 거쳐 일부 물량을 반출하고 있지만, 평소보다 90% 이상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광양을 비롯해 여수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물리적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급한 물류를 반출하려는 공장 측과 화물연대와 마찰도 우려된다.

경찰은 여수와 광양지역에 4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한 업체 관계자는 "긴급 물량은 화물연대와 협의해 겨우 반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운송을 거부하면 사실상 공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제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검찰, 대출·보험사기 규명 성과

단순 교통사고 사건 보완수사
 일당 3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에 대출·보험사기 범죄를 규명한 수사 성과를 공개하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로 조직적인 대출사기와 보험사기 범행을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총책 A씨(37), B씨(39) 형제 등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햇살론'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 및 대출심사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허위사업체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02차례 대출로 1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대출사기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구입한 외제차를 이용해 4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6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매입가는 낮지만 수리비가 고액인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단순 교통사고 사건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교통사고 피해자의 동일 장소 다수 사고 이력과 2년간 60회 이상 보험금 수령 등을 확인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은 "검사가 경찰에 보험사기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 수사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며 "이후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피의자로 입건·재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건을 재송치받고, 직접 보완수사한 끝에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시민모임, '학생인권 침해' 행정실장 징계·재발방지책 요구

광주시민교육단체가 학생들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역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학생 인권 침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이

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설령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위반했다라도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상해·폭행·강요 등 폭력적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나라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수능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9일 오전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김생후 기자

6월 모의평가, 작년 수능과 비슷

공통과목서 변별력 클 듯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입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수능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에 응시하고 선택과목 1개를 골라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6월 모평은 선택과목보다는 공통과목의 변별

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어영역의 경우 '불국어'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공통과목 중 독서에서는 인문보다는 과학과 사회 지문이 다소 어려웠고 문학은 고전소설, 고전시가, 현대소설 등 독서보다 좀 더 무난한 지문과 문항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언어 문항 난도가 높아 '회법과 작문'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선택과목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돼 변별력은 공통과목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는 도표를 해석하고 경제 법칙에 따라 수치를 계산해야 하는 독서(사회) 16번 문항을 공통적으로 지목했으며 현대사에서 EBS 비연계 작품을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33번 문항도 꼽았다.

수학 영역은 전반적으로 변별력 있게 출제됐던 전년도 수능과 비슷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의 난도 역시 지난해 처리된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입시업체들은 분석했다. /이나라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앞)</p> <p>시세 -> 9억 급매가 -> 6억</p> <p>(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p>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p> <p>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향평면(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p>
--	--	---

010-6670-9800